

### 정부 금강산 피살 중간조사 결과 발표

■ 여전히 남은 의문점

# 총성 횡수·발생 시간 등 엇갈려

현대아산 운반차 사장이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금강산 피살사건의 경위에 대한 설명으로, 사건 경위를 둘러싼 의혹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의 '구두' 설명에 불과한데 이를 입증할 만한 펜스 폐쇄회로(CC) TV의 내용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으며 총성 횡수와 사건 발생 시각에 대해 북측 설명과 다른 남측 관광객의 증언이 잇따라 나온 만큼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남는다.

현대아산 측은 GPS 장치를 통해 정확한 시각을 측정할 결과, 비치호텔 CCTV에 설정된 시간이 실제보다 12분50초 빨리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고(故) 박왕자(여·53)씨가 속소인 비치호텔을 나온 시각은 기존 새벽 4시30분에서 새벽 4시18분으로 40분 앞당겨졌다.

박씨의 이동거리도 달라졌다. 사건발생 당시 북측은 현대아산 측에 박씨의 시선은 경계 펜스에서 북측 군사지역으로 200m 더 들어간 지점에서 발견됐고, 또 박씨가 북한 초병에 의해 제지당한 곳은 이보다 1km 더 떨어진 북한 초소 인근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측은 이번엔 박씨가 총격 받은 지점은 경계펜스에서 300m 떨어진 곳이고 또한 박씨가 북한 초병과 맞닥뜨린 곳은 기존 1km보다

200m 덜 간 800m이었다고 운 사장에게 설명했다. 박씨의 총 이동거리는 2.2km로 기존에 알려진 3.3km보다 1km가량 줄어든 것.

사건 발생시간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최초 현대아산측에 발생 시각을 새벽 5시라고 말했다가 12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담화문 발표에서는 새벽 4시50분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이 4시50분이라는 시각이 북측 초병이 박씨를 최초 목격할 시각이라고 북측은 다시 말을

가설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 사장은 이번에 북한 초병은 모두 3명이고 이 중 1명이 박씨를 발견해 따라가 총을 쏘으며 나머지 두 명은 총격 후에 나타난 것이라는 북측 설명을 전했다.

그는 총격 후 나타난 초병들에 대해서 "아마도 기생바위가 아닌 다른 쪽에서 나온 곳으로 이해한다"며 "자세한 위치는 군사기밀에 속해 어느 위치에 있는지(북측으로부터)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측이 설명한 북한 초병

### 北 일방적 발표 의존... 남측 관광객 증언과 달라

### 현대아산측 CCTV 복원이 경위 파악 열쇠 될듯

바꿨다.

하지만 박씨가 북측 초병을 발견하고 800m가량을 도망가다 총격에 숨진 것을 감안하면 사건 발생시간이 대략 4시55분에서 5시로 추정돼 기존 5시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해수욕장 경계펜스 인근 초소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왔다. 제2 초소의 존재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기생바위 인근 초병이 '1차 저지선(즉 제2 초소)'을 뚫고 들어온 박씨를 보고 다급한 나머지 박씨의 신병을 확보하기보다는 총으로 쏜 게 아니냐는

이 박씨를 발견하고 '썬' 움직이면 쏜다'를 3회 반복해 제지했으나 박씨가 도망치자 쏘아가 공포탄을 한 발 발사한 뒤 재차 조준사격으로 세 발 쏘았다는 내용은 남측 관광객들이 공통적으로 총성 1발, 비명소리 그리고 다시 총성 1발 들렸다고 증언한 것과는 배치된다.

새벽 5시경으로 추정되는 사건 발생 시각도 '총소리가 5시20분경 들렸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여성 관광객 이씨의 진술과 모순된다.

이씨가 숙박했던 해금강호텔에 CCTV가 있지만 이 CCTV의 저장 용량이 3일분이라 현재 이씨의 호

비치호텔 출발시간	4:31	4:18
북측 초병의 사고자 발견시간	연급 없음	4:50
발견장소 상황	기생바위 해수욕장 앞편 시냇물	기생바위 앞편 해운 강변으로 이동 중
발견지점	1.2km	800m
발견 후 상황	초병이 총을 쏘고 30미터 해수욕장 방향으로 도주	'썬' 움직이면 쏜다는 말 반복해 제지하며 2인 1조로 총을 쏘다
사건 횡수	표적사격 후 사격	표적사격 후 총격
피격사실	200m	300m
사망시간	5:00	연급 없음

텔 출입시각을 녹화한 장면은 CCTV 저장장치에서 지워진 상태다.

그러나 현대아산 측이 CCTV의 저장장치를 따로 보관하고 있으며 해당 부분을 복원할 계획이어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실마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한국 등 아시아와 파트너십 강화할 때”

### 오바마 美 대통령 후보, 외교정책 전략 발표 “이라크 주둔 미군 16개월내 철수 시키겠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15일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인도 등 아시아 국가와 파트너십 강화를 역설하고 중국과 기후변화 등과 같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외교정책 전략을 발표하면서 “안정되고 번영하는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한국, 일본, 호주 그리고 전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와 파트너십을 강화할 때”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또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더 개방되고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사회로 발전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같은 공동의 관심사

를 놓고 협력할 때라고 대(對)아시아 정책을 밝혔다.

이러 오바마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이라크 전쟁과 관련하여 “모든 위협과 우리가 잡아야 할 많은 기회들을 가지고 있다”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라크 주둔 미군을 16개월내에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아프간에 2개 전투여단(약 7천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할 것임을 약속하고 아프간 국경의 파키스탄 부족 지역이 미국과 파키스탄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 “파키스탄이 더 개방되고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사회로 발전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같은 공동의 관심사

파키스탄 영토에서의 미군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오바마는 우라늄 농축 활동을 강행하고 있는 이라크에 대해 이라크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게 미국의 이익에 중대한 문제라면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라크·쿠바·북한 등 이른바 불량국가 지도자들과도 조건없이 만나 대화하겠다고 밝혀왔던 오바마는 “우리(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와 때에 적절한 지도자와 만나겠다”며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오바마는 유럽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국제협력의 시대를 열 때”라면서 “미국과 유럽이 20세기에 부딪히지 않았던 21세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공동의 협력을 갱신할 때”라며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강화와 유엔의 개혁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 이라크 자폭테러 잇따라 37명 사망, 70여명 부상

이라크 디얌라주 동부의 모병센터 등지에서 15일 자살폭탄 테러가 잇따라 발생, 최소 37명이 사망했다고 이라크 국방부가 밝혔다.

이날 오전 폭탄을 두른 조끼를 입은 두 명의 테러용의자가 디얌라주 동부 알 사드 기지내 모병센터에서 자살테러를 감행, 신병 지원자 28명이 숨지고 최소 55명이 부상했다.

폭탄 테러범 중 한 명은 이라크군 복장을 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희생자 대부분은 이 지역에서 신병 모집에 참여한 이들이다.

사건이 일어난 바그다드 북동쪽의 디얌라 지역은 알 카에다의 거점이자 미국과 이라크의 공동 안보 구역으로 자살 공격이 빈번해 이라크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다.

한편 같은 날 알 카에다의 또 다른 거점인 이라크 북부 모술에서도 폭탄 테러가 연달아 발생 9명이 숨졌다.

모술 동부의 알 누르 인근에서 차량이 폭발해 5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으며, 시내 중심부에서도 자살 폭탄 테러로 인해 4명이 죽고 5명이 부상했다.

또 이날 수도 바그다드 동부에서는 카림 와히드 전력장관이 지나던 길에서 폭탄이 터져 경호원 3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 초당적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출범

#### 내년 상반기 중 개헌안 제출

18대 국회 내 개헌을 목표로 결성된 의원 연구모임인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공동대표 한나라당 이주영, 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식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모임에는 의원들의 참여가 이어지며 벌써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인 151명의 의원이 회원

으로 참여하는 매머드급 개헌 연구단체로 발전해 있다. 이들 의원만으로도 개헌안 발의의 기준(150석)을 넘는다.

헌법연구회는 창립취지문을 통해 “87년 체제라고 불리는 현행 헌법이 지금의 현실에 잘 맞는지 재검토할 때가 됐다”면서 “대통령 단일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통일·복지·경제의 바람직한 미래를 우리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홍사덕·김무성 등 19명 한나라당 복당

한나라당은 16일 친박연대 홍사덕 박종근, 친박 무소속 연대 김무성 이경재 이해봉 이인기 최구식 의원 등과 순수 무소속 김세연 강길부 의원 등 19명이 복당 또는 입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재 한나라당 의석수는 기존 152명에서 171명으로 늘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박희태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재입당을 신청, 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입당 의결을 거친 김세연, 강길부 의원의 입당 승인을 공식 의결했

다. 또 지난 11일 각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한 친박 무소속 연대의 김무성 이경재 이해봉 이인기 김태환 유기준 최구식 한선교 성유환 유재중 이진복 정해걸 의원 등 12명은 이미 최고위 승인이 있었던 만큼 시·도당 심사후 복당절차가 완료됐다고 당은 밝혔다.

친박연대 지역구 의원인 홍사덕 박종근 조원진 박대해 홍장표 의원 등 5명도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차례로 해당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고, 복당이 이뤄졌다. /연합뉴스

### 90회 생일 맞는 만델라

20세기 인권 운동의 상징으로 불리는 넬슨 만델라 아프리카 민족회의(ANC)의 장이 오는 18일 90세가 된다. 지난 1918년 7월 18일 남아공화국 케이프타운 동남부 음베조 마을에서 템부족의 추장 가문에서 태어난 만델라는 40여년에 걸친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투쟁으로 흑백간 유혈 분쟁을 해소하는 길을 열어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이후 남아공 최초 흑인 대통령에 당선됐다. /연합뉴스

**강한 남 '성'의 힘! MAN2080!**

1. 근육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2. 근육을 키우는 가장 빠른 방법

3. 근육을 키우는 가장 안전한 방법

4. 근육을 키우는 가장 저렴한 방법

5. 근육을 키우는 가장 간편한 방법

6. 근육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7. 근육을 키우는 가장 빠른 방법

8. 근육을 키우는 가장 안전한 방법

9. 근육을 키우는 가장 저렴한 방법

10. 근육을 키우는 가장 간편한 방법

080-361-7000

**가볍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법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임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1. 선임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2. 선임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3. 선임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4. 선임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5. 선임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6. 선임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7. 선임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8. 선임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9. 선임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10. 선임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02-233-0100, 02-501-0000, 02-707-0100